

- **주요 뉴스:** 미국, 은행권 불안 완화 지속. 연준 파월 의장은 1회 추가 금리인상 시사
 - 미국 2월 잠정주택판매, 예상치 상회. 주택경기 회복 기대 증가
 - ECB 주요 인사, 추가 금리인상 필요. 인상 폭은 이전보다 줄어들 소지
 - 일본은행 부총재, 경제 여건에 따라 수익률곡선제어(YCC) 조정 가능
 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은행권 불안 완화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 등이 영향
주가 상승[+1.4%], 달러화 강세[+0.2%], 금리 하락[-1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은행 및 반도체 관련주 중심의 매수 증가 등이 반영
 유로 Stoxx600지수는 일부 기업의 실적개선 기대 등으로 1.3%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고금리 유지 가능성 등이 원인
 유로화 가치는 약보합, 엔화는 1.5% 절하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월 PCE 물가 발표 앞두고 경계감 강화 등이 배경
 독일은 4월 GfK 소비자신뢰 개선 등의 영향으로 4bp 상승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304.5원, +1.8원) 0.4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3/29일	3/28일	전일대비			3/29일	3/28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027.8	3,971.3	1.42%	국채 금리 10y	미국	3.56%	3.57%	-1bp
	유럽	450.21	444.45	1.30%		독일	2.33%	2.29%	4bp
	중국	3,240.1	3,245.4	-0.16%		영국	3.47%	3.46%	2bp
	일본	27,884	27,518	1.33%	CDS 5y	한국	44bp	44bp	0bp
	한국	2,443.9	2,434.9	0.37%		중국	79bp	82bp	-3bp
환율	달러지수	102.65	102.43	0.22%	위험 지표	EMBI+	-	418	-
	유로화	1.0844	1.0845	-0.01%		VIX	19.12	19.97	-4.26%
	엔화	132.86	130.89	-1.48%		WTI유	72.97	73.20	-0.31%
	위안화	6.8895	6.8763	-0.19%	원자재	구리	411.5	411.2	0.07%
	원화	1,302.7	1,298.8	-0.30%		금	1,964.7	1,973.5	-0.45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, 은행권 불안 완화 지속. 연준 파월 의장은 1회 추가 금리인상 시사

- 미국 증시에서 KBW 은행지수가 전일비 2.1% 오르며 투자자들의 은행권 불안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. 시그니처뱅크의 경우 급등(+84.6%)에 성공했고, 퍼스트리퍼블릭뱅크(+5.6%) 역시 상승 마감
- Moody's는 최근 은행권 불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신용위험이 제한적이라고 진단. 일부 지역은행들이 파산하여 지역은행 시스템이 예상보다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, 이로 인해 신용위험 혹은 정부의 지출비용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
- UBS는 Credit Suisse 인수에 앞서 세르지오 에르모티 전 CEO를 영입. '11년~'20년 CEO를 역임했던 에르모티 전 CEO는 당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
- 한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비공개 자리에서 의원들로부터 향후 금리인상이 몇 차례 남았는지 질문을 받은 것으로 보도. 파월 의장은 최근 공개된 점도표를 참고하라고 대답했는데, 점도표는 1번의 추가 금리인상이 남았음을 제시
- 마이클 바 은행감독 부의장은 하원 청문회에 참석하여 SVB의 위기 상황을 파산 하루 전에 파악했다고 언급. 다만 이번 지역은행 사태는 일부 은행들이 금리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2월 잠정주택판매, 예상치 상회. 주택경기 회복 기대 증가

- 2월 잠정주택판매는 전월비 0.8% 증가하여 예상치(-3.0%) 대비 높은 수준. 다만 전월(8.1%) 대비로는 증가세 둔화. 최근 모기지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수요가 개선되는 등 주택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. 주택경기 둔화의 종료가 가까워지는 것으로 판단(NAR의 Lawrence Yun)
- 한편 전미소매업협회(NRF)는 금년 소매판매 증가율이 4.0%~6.0%에 이를 것으로 전망. 다만 이는 전년도(7.0%) 대비 둔화된 수준. 양호한 가계저축 및 견조한 노동시장 등이 소매판매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

■ ECB 주요 인사, 추가 금리인상 필요. 이전보다 인상 폭은 줄어들 소지

- ECB의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까지 떨어뜨리기 위해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. 한편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과정에서 경기침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경기 연착륙도 가능하다고 평가
- 슬로바키아 중앙은행 카지미르 총재 역시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. 다만 금리인상 폭은 다소 축소될 수 있다고 부연

■ 독일 4월 GfK 소비자신뢰, 전월비 개선.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이 반영

- 4월 GfK 소비자신뢰는 -29.5를 기록하여 전월(-30.6) 대비 상승. 이번 결과는 최근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경기회복 기대 등에 기인. 다만 경기회복 속도는 이전에 비해 약한 것으로 판단되며, 특히 민간소비 등이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제한적인 상황(GfK의 Rolf Buerkl)

■ 영란은행, 향후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는 기업신용 부문일 가능성

- 금리상승 및 지정학적 갈등 지속 여건에서는 고수익채권, 레버리지론, 민간신용 등이 특히 취약한 부문이 될 수 있다고 평가. 한편 영국 은행시스템은 양호한 상황이지만 그림자금융 등 비은행권 부문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

■ 아시아개발은행(ADB), 금년 글로벌 경제성장은 아시아가 주도할 전망

- 아메드 사이드 부총재는 금년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1%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. 반면,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가 글로벌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

■ 일본은행 부총재, 경제 여건에 따라 수익률곡선제어(YCC) 조정 가능

- 우치다 부총재는 경제 및 물가 여건 등으로 경기부양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YCC의 조정 역시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. 다만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데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할 것이라고 부연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3/30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'22년 4/4분기 성장률(확정치), 3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
- 유로존 3월 소비자신뢰, 독일 3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SVB 인수 합의, 지역은행 안정에 기여할 전망 - 블룸버그

(SVB's Bargain-Bin Sale Helps Save Regional Banking)

- 3/27일 SVB 인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퍼스트시티즌스 주가는 50% 이상 급등했고 KBW 은행지수도 4% 상승. 이는 연방예금보험공사(FDIC)가 700억달러의 신용한도 연장 및 향후 5년 간 50억달러 이상의 상업대출 손실 보상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인수 업체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 포함되었기 때문
- FDIC가 SVB를 분할 매각하지 않고 지역은행을 단독 인수 업체로 선정한 점도 주목할 만한 사안. 퍼스트시티즌스가 금번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신뢰를 쌓는다면 지역은행 전반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

■ 당국의 은행 안전성 강화, 구조적으로 성장 둔화를 유도할 소지 - 블룸버그

(Want Safer Banks? Then Prepare for Slower Growth)

- 통상적으로 정부 당국은 지속적인 성장, 저물가, 금융 안정성이 동시에 충족되기를 기대.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장기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. 최근 상황에서도 고물가 대응을 위한 통화긴축이 성장둔화 및 금융 불안정을 초래
-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낮은 수준의 레버리지와 손실흡수를 위한 대규모 자본이 필요. 그러나 이는 은행의 주요 기능인 금융중개를 보다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더 많은 비용을 요구. 이러한 여건에서 은행 신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투자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,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
- 이와 같은 본질을 고려한다면, 금융 불안 발생 시 모든 위기를 막기보다는 은행 파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보다 생산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판단

■ 중국의 은행권 우려, 당국의 선제적 대응 강화 등으로 개선될 가능성 - 블룸버그

(That Other Banking Mess)

- '22년 중국의 경기침체로 예금주, 소기업, 지방정부 재정에 어려움이 더하면서 지방은행 관련 불안이 증대. 특히 '20년 당국의 바오샹 은행 파산 허용으로 은행 위기 발생 시 정부의 '암묵적 보증'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 팽배
- 그러나 최근 정책 당국이 은행에 자본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이전보다 개선. 아울러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회복 강화 역시 은행권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
■ **은행권 불안,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를 저해 - 이코노미스트**

(Will the recent banking chaos lead to an economic crash?)

-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이 개선되고 있었으나 최근 SVB, Credit Suisse 사태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증가. JPMorgan은 시장 신뢰가 약해지고 대출이 위축되면 연착륙조차 불가능해 보인다고 평가
- 은행권 불안은 불확실성과 신용의 경로로 실물경제에 영향. IMF가 '13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, 전쟁 및 은행권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시 세계 경제 성장률이 0.5%p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. 골드만삭스는 신용 불안에 따른 대출 위축 시 미국과 유럽의 GDP 성장률이 0.4%p씩 낮아질 것으로 추산

■ **미국 달러화 약세, 세계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- 블룸버그**

(The Dollar's Coming Slide Will Be Welcomed by the Worl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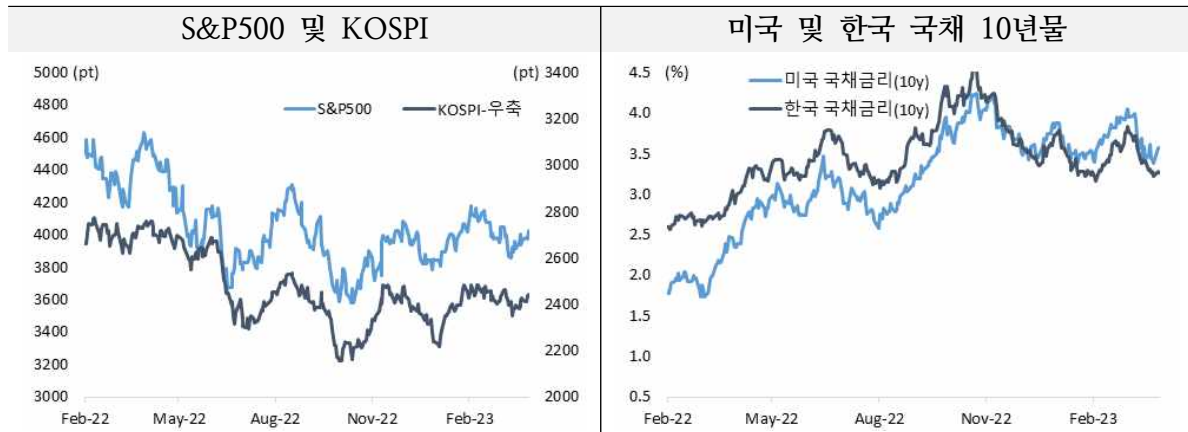
■ **미국 소비심리, 금리인하 시 오히려 경기 불확실성 증폭되며 악화될 소지 - 블룸버그**

(Are Consumers Keeping Their Heads or Losing Them?)

■ **미국 은행권 불안, 부동산담보대출 수요 감소 등으로 주택경기에 타격 - WSJ**

(How the Bank Mess Can Hit Home Buyers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172, E-mail jsjeong@kcif.or.kr